2026.10.20

[국내주식 마감 시황]

이재원 Market Analyst | jaewon2.lee@yuantakorea.com
김세빈 Research Assistant | sebin2.kim@yuantakorea.com

외국인 이틀치 순매수 하루만에 되돌림

KOSPI 5,552pt(-3.7%), KOSDAQ 781pt(-3.3%)

① 해외 시황 — 미국 반도체 반등에도 AI 신용위험과 금리 부담 지속

- 간밤 미국 주식시장은 다우 -0.1%, S&P500 +0.4%, 나스닥 +1.1%로 혼조 마감.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1.6%, 마이크론 +3.0%, 아마존 +5.0% 등 낙폭 과대 기술주 중심 반등. 골드만삭스는 코어위브 투자의견을 매수로 상향했으나 주가는 -0.4%로 약보합 마감. AI 인프라 수요에 대한 긍정적 전망에도 자금조달 부담과 투자수익률에 대한 경계감 지속
  프랑스 정치·재정 불안에 국채금리 상승하고 중동 공급망 차질 우려로 국제유가도 상승. 글로벌 장기금리의 추가 상승 부담 부각. 금일 아시아 장중 미국 나스닥100 선물 역시 약보합. 10월 FOMC 동결 확률은 82.8%로 추가 긴축 우려는 제한적이나, AI 기업의 신용위험은 여전히 별개의 부담 요인

② 수급 — 외국인 이틀간 순매수, 하루 만에 사실상 상쇄

- 거래소 합산 KOSPI 기준 개인 +1.5조원, 기관 -1.3조원, 외국인 -0.8조원 현물 순매수(17:30 기준). 외국인 16일 3,531억원 19일 7,402억원 순매도 했으나 금일 현시점 8천억원 이상 순매도 하며 이틀간 유입된 순매수대금 대부분 되돌림. 환율과 미국 반도체주가 안정된 상황에서도 국내 증시의 상대적 약세가 지속됐다는 점에서 수급 취약성 재확인

③ 특징업종 — 반도체·2차전지 동반 약세, 일부 테마 차별화

- 1) 2차전지: 전일 북미 ESS 공급망 재편 기대에 급등했던 종목들도 차익실현과 시장 전반 매도 압력에 하락. 중국 ESS 업체들의 미국 시장 철수설에 따른 구조적 수혜 기대는 유효하나 단기 수급 변동성

④ 이벤트 — 빅테크 실적과 국내 금통위

- 1) 미국 주요 기업 실적: 넷플릭스(10/20), 메타·테슬라(10/21) 2) 한국 금융통화위원회(10/22) 3) SK하이닉스(10/27), 삼성전자(10/29) 실적 컨퍼런스콜 및 주주환원 정책 확인

⑤ 시황 — 저평가에도 반등을 가로막는 수급 불균형

- 금일 KOSPI, KOSDAQ 각각 미국 반도체주 반등에도 3.7%, 3.3% 급락 KOSPI는 장중 5,493pt(-4.8%)까지 하락한 이후 5,553pt(-3.7%)로 낙폭 일부 축소. 10월 15일 서킷브레이커 발동 당시 종가인 5,554pt를 재차 하회하며 지난 2거래일 반등분 전부 반납. 일본(니케이 225 -1.3%)과 대만(가권 -1.1%) 등 주요 아시아 주식시장보다 낙폭이 컸다는 점에서도 한국 특유의 수급 문제가 재확인된 하루. 특히 지난 이틀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나타났던 기술적 반등이 하루 만에 무산.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된 외국인 포지션 축소와 이를 흡수할 국내 매수 여력 부족이 여전히 주가를 지배하는 상황

- 밸류에이션) 기존 저평가 판단은 유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4개월 선행 PBR은 모두 1배 미만. 과거 다운사이클 저점권. 2027~2028년 메모리 이익 전망이 구조적으로 훼손됐다는 증거 역시 아직 부재. 최근 주가 하락은 실적 하향보다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위험 인식 변화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포지션 축소가 선행된 성격. 다만 극단적인 저평가가 단기 주가 하단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금일 시장에서 재확인

- 수급) 금리와 유가 안정에도 외국인 매도가 지속됐던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미국 반도체 반등만으로 국내 수급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 심지어 대만, 일본 뿐 아니라 폭동이 일어난 프랑스보다 못한 주식시장. 연초 이후 외국인 매도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집중된 가운데 자사주 매입 공백과 개인, 연기금(오늘도 순매도)의 제한적인 매수 여력이 하락을 증폭시키는 구조. 금일 장중 5,493pt까지 하락했으나 10월 15일 장중 저점인 5,451pt는 유지. 추가 하락 여부보다 해당 가격대에서 실제 매수세가 지속적으

로 유입되는지가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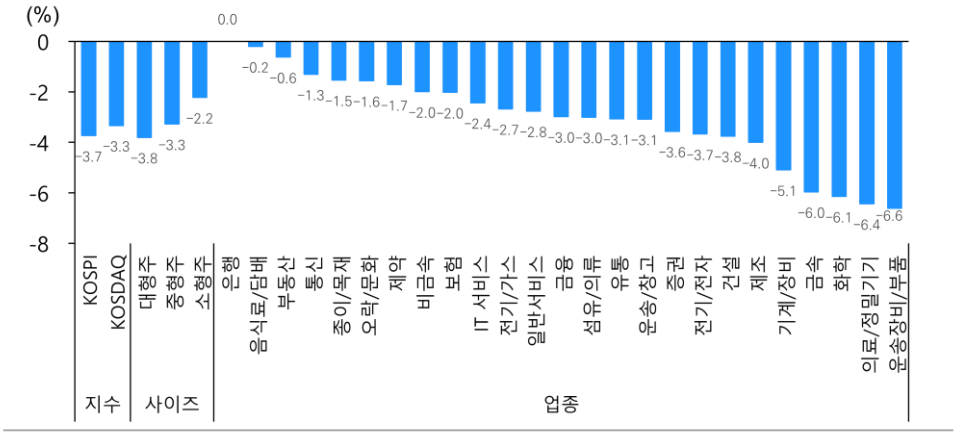
- 전략) 현 수준의 밸류에이션에서 추가 투매에 동참할 실익은 제한적이며 IT 비중 높은 대만과 같은 아시아 주식시장도 견조한 흐름이었으나, 수급 안정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격적인 비중 확대 역시 경계할 필요. 이번 주 빅테크 실적에서는 CapEx 확대 규모보다 1) AI 서비스의 매출 기여, 2) 현금흐름 및 투자수익률 개선 여부가 중요. AI 인프라 신용위험이 실제 설비투자 축소와 2027~2028년 메모리 이익 하향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답변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 기존 반도체 대형주 노출을 유지하면서 실제 수주와 실적이 뒷받침되는 반도체 소부장 및 북미 ESS 공급망 수혜주 중심의 선별적 분할 대응 지속

당일 투자자별 순매수대금

(단위: 억원)	KOSPI	KOSDAQ
기관	-9,988	-1,104
외국인	-5,178	-1,816
개인	8,863	2,916
거래대금	159,997	49,952

자료: 인포맥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일간 수익률



자료: 인포맥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이재원)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